

지역 소식통

김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개최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달 28일 위기청소년 발굴·지원과 필수연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2024년 제1차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안전망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기관을 연계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차입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으로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실무위원회는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해 김제시, 김제교육지원청, 김제경찰서 등 지역사회 필수 연계기관의 실무자 18명으로 구성돼 신규 위원 위촉식 및 2024년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주요사업을 소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지원협의회 위원 위촉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 2024년 제1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를 열고,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지난달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위원장에는 지역사회전문가인 최영선 위원이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청소년 전문가, 지역 학교장 등 12명이 위촉됐다.

지원협의회는 지원협의회 운영 규정 논의, 청소년 입학 상황 보고, 사업 계획 및 운영 보고 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협조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영선 위원장은 "정기적인 지원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및 연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정선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김제, 민선 8기 난제사업 정면 돌파

## 지평선 새마루 리뉴얼 오픈 예정 등 장기 표류사업 해결에 속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장기 표류 중인 난제사업 해결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제시는 민선 8기 들어 구 동진강 휴게소, 김제온천, 노인입대주택, 황산군사시설 보호구역,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등 장기 표류 중인 난제사업을 집중 관리해 왔다.

시는 난제사업 대책 마련을 위해 수차례 전략회의를 실시하고 사업장 현장 방문, 전문가와 시민 의견수렴 등 적극행정을 통해 새로운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변화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기 표류 중인 난제사업 가운데 제1호로 해결책을 찾은 것은 구 동진강 휴게소다. 구 동진강 휴게소는 지난 1992년 운영을 시작해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으나 2012년 민간사업자의 무상 임대 종료에 따른 영업 중지 이후 12년째 방치돼 왔다.

시는 구 동진강 휴게소 부지 활용을 위해 중앙 및 전북자치도 공모에 적극 대응해 총 35.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최근 리모델링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며 오는 5월 '지평선 새마루'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 열 계획에 분주하다.

'지평선 새마루'는 부지 규모 7,134㎡, 연면적 1,037㎡의 2층 건물로 먹거리 부스, 카페, 농특산물 판매장, 공연장, 쉼터, 산책로 등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명칭은 지난 2023년 9월 시민 설문 등을 통해 '김제시의 새로운 쉼터'를 의미하는 '지평선 새마루'로 최종 선정됐다.

또 다른 난제사업인 김제온천과 노인입대주택도 민관 협력으로 좋은 성

과를 내고 있다.

김제온천은 2004년 스파랜드 부도로 20년간 장기 방치돼왔으나 시는 지난 2023년 12월 민간사업자와 김제온천 활성화 MOU(세부 시행계획)를 체결하고 2024년 본예산에 기반시설 공사 예산을 확보해 올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온천공 등 김제온천 내부 리모델링과 진입도로 포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난제사업 해결은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며 "오랜 시간 끌어온 문제였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성과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난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이 지난달 29일 고산면 덕암 에너지자립마을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인 몽골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범죄예방 교육

### 5개월간 머무는 몽골근로자 대상

완주군이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이 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교육은 고산면 덕암 에너지자립마을에서 5개월간 머물며 농촌 일손을 돕게 된 공공형 계절근로자인 몽골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고산파출소(소장 이승열)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외국인들이 위반하기 쉬운 법률, 한국의 교통법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요령 등 외국인 범죄사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완주=염재복 기자

교육을 마친 후에는 전주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고산농협에 방문해서 급여 통장을 발급 받는 등 국내체류를 위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저녁 시간에는 고산농협이 환영식을 준비해, 계절근로자들의 화합과 의지를 다졌다.

손병철 고산농협 조합장은 "농번기 바쁜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농촌의 인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 완주군에 감사하다"며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농촌에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완주 '미세먼지 줄인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대상, 4월 9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 29일 완주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사업 일환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기준 차량 사용 분겨지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가 6개월

이상 소유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자동차다. 지원대수는 72대다.

신청기간은 4월 9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www.mecar.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군청 6층 자원순환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하면 된다.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적

으로 부착 운행해야 한다. 장치부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지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자원순환과(290-2664)로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통해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김제 성덕면 복지기동대, 수로관 봉사로 막힌 물길 터

### 취약계층 대상자 경사진 뒷마당 주거환경 개선 앞장

김제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이귀연) 10여명이 지난달 29일 취약계층 대상자의 경사진 뒷마당에 수로관을 설치하는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는 집중호우로 폭우가 내릴 때마다 빗물 유입으로 곰팡이가 피고 습기가 많아 합선의 위험이 있는 세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봉사에 참석한 대원들은 집 주변 대나무 및 잡목을 제거하고 물길 유도를 위해 골을 파 수로관을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귀연 복지기동대 대장은 "여름철 폭우 때마다 빗물이 넘칠까 걱정해서 잠을 못자다는 어르신들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성덕면 이웃을 위해 보탬이 되는 기동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순 성덕면장은 "평균나이 44세로 구성된 복지기동대에서 낫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나서서 성덕면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움

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덕면 복지기동대는 지난 2015년 봉사단체 성병회를 전신으로 결성된 이후 10여년째 환경정화, 겨울철 마을 길 재설작업, 산타 행사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관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꽃빛드리 축제 기간 반부패·청렴 캠페인

### 김제시, '부패 경험 Zero, 청렴 김제' 주제 포토 부스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4 김제시 꽃빛드리 축제 기간(3월 29일~31일) 동안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렴 포토 부스(즉석 사진관) 운영해 부패 ZERO 김제를 위한 반부패·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김제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청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과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김제시를 만들어 청렴의부채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부패 경험 Zero, 청렴 김제'를 주제로 청렴 포토 부스(즉석 사진관) 운영, 부패 취약 분야 현장 투표, 김제시 반부패·청렴 정책 홍보 등이다.

축제장에 방문한 시민들이 가족,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축제의 즐거움을 나누고 촬영한 사진에 청렴 다짐을 적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렴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증정한 청렴 파우치에는 '부패는 버리고 청렴을 담아요'라는 문구를 새겨 일상에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청렴 포토 부스 운영을 통해 김제시의 반부패·청렴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해 시민과 함께 부패 경험 제로(Zero·0)의 청렴 김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